

CERIK 건설경제 예측모형 개발

건설시장 개방이 임박해옴에 따라 건설산업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환기를 맞은 건설산업이 원만한 구조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또는 분석하여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설 관련 정책 당국이나 건설 관련 단체 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는 예산 제약이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건설 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나 전망을 필요할 때에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초부터 KDI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분석, 그리고 장·단기 경제 전망을 위해 계량 모형을 개발·활용하여 왔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 민간 연구소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계량 모형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은 일반 경제 전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건설산업과 관계된 구체적인 전망 자료나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본 원에서 새로 개발한 ‘CERIK 건설 경제 예측 모형’은 거시적 관점에서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계량 경제 모형으로 주로 건설 경제 동향의 분석과 단기 예측이라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 모형은 건설산업 및 부동산, 최종 수요, 공급 및 노동, 임금 및 물가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물 경제 모형으로, 행태 방정식 35개와 항등식 18개로 구성된 중간 규모의 모형이다.

본 모형은 건설 수주, 건축 허가, 각종 부동산 관련 변수 등을 대부분 내생 변수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 활동의 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효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